

전라도 숨결 깃든 문화유산 오감으로 즐긴다

고인돌·지석묘·패총·차 문화 등
나주문화재연구소, 12월까지 진행
특강·답사·만남 등 역사 조명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 열린 문화유산 북 콘서트 모습. (나주문화재연구소 제공)

고인돌, 고분군, 지석묘, 나루터, 토기가마, 사찰, 차 문화 등...

전라도 곳곳에는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산재한다. 다양하면서도 유서 깊은 문화유산은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양하는 상징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전라도 문화유산의 이모저모를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임승경)은 연구교류동 1층에 있는 소통 공간인 '문화재 사랑방'에서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 수요일마다(7·8월 제외)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전라도 오감(五感), 문화유산을 즐긴다'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재 사랑방' 세번째 강좌로, 지역 주민을 초대해 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특강·답사', '답사', '만남' 등 모두 3부문으로 진행되며 전라도의 숨결이 깃든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역사,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1부문 '전라도, 五感에 빠지다'는 특강과 답사로 이루어진다. 전라도 문화유산을 오랫동안 조사하고 연구한 원로학자들의 판독을 느낄 수 있는 강의와 더불어 화순, 나주, 장흥, 해남 등을 둘러보는 현장 답사가 진행된다.

먼저 오는 10일에는 '화순의 고인돌'(이영문 동북아시아고고연구소)을 주제로 강의가 전개된다. 5월 15일에는 '나주의 차문화'(강순형 전 국립문화재

연구소), 6월 12일에는 '해남 근곡리 패총과 고대 해양교류'(최성락 목포대학교)가 예정돼 있다.

9월 20일과 21일에는 각각 '문화유산 사진촬영'(오세운 문화재사진연구소), '시(視), 문화재 하나의 풍경이 되다'가 진행된다. 10월 16일에는 '북악리 고분군과 나주'(임영진 전남대학교)가 펼쳐진다.

2부문 '전라도, 문화유산을 알아가다'는 특강 위주로 진행된다. 영산강의 나루터, 읍성 등 전라도의 문화유산을 직접 조사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강사로 나서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펼친다.

낮 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직장인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먼저 오는 24일에는 '섬진강유역과 지석묘'(이동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예정돼 있다. 이어 5월 29일에 '영산강의 나루터'(양성숙 문화관광해설

사), 6월 26일 '해남 근곡리 패총과 토기가마'(이지영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펼쳐진다. 9월 25일과 10월 30일에는 각각 '전라도 읍성과 나주 읍성'(김만호 광주전남연구원), '나주 송제리 고분'(오동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등이 펼쳐진다.

3부문은 '전라도, 문화유산을 찾다'는 '만남'을 매개로 나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지역 주민과 함께 찾아가, 소개할 계획이다.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의 핵심적인 문화유산인 대형옹관을 매개로 한 이현배 용기장의 '진안 손나옹기 공방을 가다'(11월 27일)와 '문화유산 북토크(BOOK TALK)'(12월 18일)이 진행된다.

문화재 사랑방 규모를 고려해 매회 3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첫 번째 교육인 오는 10일 프로그램에 참여 희망자는 8일 오후 1시부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339-113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리뷰-22년만에 전막 공연 현존 최고(最古) 낭만 발레 '라 실피드'



광주시립발레단은 지난 5~7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발레 '라 실피드'를 공연했다.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순백의 25명 발레리나 군무 압권

섬세한 감정변화 직설적 표현 아쉬워

광주시립발레단은 지난 5~7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현존 최고(最古) 낭만 발레 '라 실피드'를 한국에서는 22년 만에 전막 공연했다.

2억7000만원의 예산이 든 이번 제작에는 러시아 불쇼이 발레단에서 15년 동안 '라 실피드' 주역을 맡은 안드레이 볼로틴과 한국인 최초 솔리스트 배우윤이 오귀스트 부르농빌의 1836년 작품을 재안무·연출했다. 불쇼이 극장 출신 로만 데니스오브의 지휘로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했고 모스크바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대·의상·조명·디자인 등 60여 명이 제작에 참여했다. 시립발레단 무용수 강은혜·구윤지·김민영, 우건화·이기행 등 신진 무용수들이 요청 실피드와 청년 농부 제임스를 맡아 호흡을 맞췄다. 1회 943명·2회 850명·3회 1120명·4회 1286명의 관객(전체 1722석)이 극장을 찾았다.

가장 오래된 안무작인 '라 실피드'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내세우면서도 인간 세계와 초자연, 이상과 현실, 삶과 죽음 사이의 모순적 갈등을 담고 있다. 낭만적인 환상과 감성으로 치장한 이 작품은 역설적으로 '허황된 꿈을 좇다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라 실피드'의 안무는 우아함과 가벼움으로 압축됐다. 주인공은 '공기의 요정'(라 실피드)답게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동작을 전혀 힘들지 않은 듯 해냈다. 25명의 발레리나가 펼치는 '순백의 막'은 단연 압권이었다. 때로는 원형 때로는 대각선 대열을 이루다 동시에 두 바퀴를 도는 군무에서는 그 동안의 훈련 강도를 가능할 수 있었다.

여성 무용수가 주를 이루는 '백색 발레'(발레블랑) 작품이었지만 이번에는 실피드에 가려진 제임스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스코틀랜드 전통춤을 비중 있게 다룬 군무에서는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녀와 그의 일당이 추는 현대무용적 군무는 화려한 기교에 익숙해진 오늘날 관객의 눈높이에 맞추는 효과를 거뒀다.

제임스가 빠른 박자 속에서 발을 3차례 정교하게 맞춘 점프 뒤에 선보인 3회전 동작은 관객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제임스와 약혼녀에 피의 춤과 역할을 주역 못지않은 수준으로 부각시켜 극적 효과를 높였다.

농가가 배경이었던 1막에 이어 2막에서는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숲 속 풍경이 펼쳐졌다. 셰익스피어의 낭만 희극 '한여름 밤의 꿈'이 떠올라지는 대목이다. '라 실피드' 역시 동화 같은 묘사로 요정 세계와 인간 세계를 긴밀하게 엮어냈다.

섬세한 감정 변화를 표현해야 하는 대목에서는 다소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주인공이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고 사랑이 무리였을 때 나누는 손짓은 대사를 주고 받는 듯했지만 마임적 요소가 과해 보였다.

광주의 한 전문가는 "1막은 살짝 지루했지만 2막에서는 무용수들이 고도의 테크닉을 잘 소화했고 무대 효과 덕분에 몽환적인 연출이 돋보였다"며 "지역에서 보기 힘든 '라 실피드'를 올린 시립발레단이 '백조의 호수' 등 전통적 레퍼토리를 벗어나 앞으로는 새롭고 실험적인 동시대적 작품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립발레단은 오는 6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대한민국발레축제에 참여해 40분으로 축약된 작품을 선보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바람이 잠든 곳에 있는 널 기억하리라'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2일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



작곡가 성용원

이외 '사월의 노래'(박목월 시·김순애 곡)·'그리움'(이은상 시·홍난파 곡)·'망향'(박목월 시·채동선 곡)·'꿈'(황진이 시·김성태 곡) 등을 함께 부른다.

최해훈, 김난새, 나인희, 정갑주, 이상현, 김우진, 고재경, 이형식, 김영미, 유창중, 박종, 서해란, 박선용, 박영미 회원은 '황혼의 노래', '그리운 사람아', '고독', '그리운 마음' 등을 부르며 실력 발휘한다.

고달령 시인은 정채봉의 시 '꽃의 침묵'을 낭송하고 로타리합창단(단장 고재일)이 초청돼 '아지랑이', '가는 길'을 연주한다. 전석 초대. 문의 010-2694-459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전용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 복지사업으로 1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다. 올해 광주지역은 6만7831명에게 54억여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문화누리카드는 전용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현재 광주에는 서점, 음반판매점,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철도, 고속버스, 여행사, 테마파크, 체육용품점 등 960여개 가맹점이 등록돼 있다. 또한 지난 해부터 케이블TV, 체육시설 등으로 업종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VR체험관, 방탈출체험, 실내스포츠 등이 포함됐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광주문화누리 블로그에서 신청서 및 약약서를 내려 받아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이메일(gjcfmunhwanur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